

발 간 사

더 높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가 어우러져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는, 그런 좋은 계절에 회원 여러분의 건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우리 학회가 『환경법연구』 제27권 2호를 발간하게 됨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9월 23일에 “환경과 도로”라는 주제로 이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내고 있는 국내외의 저명학자를 모시고 제81회 국제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길(도로)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 왔으며, 가깝게는 근대화 내지 공업화의 표상이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장의 부수조건’에서 ‘생존의 조건’으로 환경의 의미가 전화되었듯이, 이제 도로는 단순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 무심한 방관자가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가꾸어야 할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환경문제는 기존의 대기오염, 소음공해 문제뿐만 아니라 일조, 재산상 손실 등 실로 예상치 못한 광범위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도로관련 법제의 개관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법학회는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학자를 초빙하여 이들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학회 임원들과 특히, 오랜 시간 동안의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학회원들의 주옥같은 옥고를 모아서 『환경법연구』 제27권 2호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 아래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김춘환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김상겸, 최윤철 교수님 등이 주옥과 같은 환경법원고를 투고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환경법학회 회원들이 원고를 투고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바쁘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전경운 출판이사를 비롯하여, 투고논문을 정성들여 심사해주신 편집위원들과 집행부 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5년 9월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박 수 혁